

# 예술가들 삶 이후의 풍경, 영원한 거처를 찾아서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함정임 지음

이들은 누구일까. 살아서는 서로 경어를 사용했으며 한집에서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죽어서는 하나의 묘석 아래 잠들어 있다. 아니 묶여 있다. 호텔에 숙박할 때면 각자 방을 얻었으며, 같은 구역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흥미로운 것은 각자 연인들을 거느리며 51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했다.

장 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다. 사르트르 사상의 끝자락을 이루는 것은 실존과 고통, 불안, 참어, 오노레 드 발자크, 스탕달, 빅토르 위고, 귀스타브 플로베르, 마르셀 프루스트, 레프 톨스토이, 안톤 체호프 등의 묘지 순례기를 만날 수 있다. 문인 외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르크 샤갈, 반 고흐와 테오 등 화가를 그리고 베를린 유대인 희생자들의 묘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보들레르는 6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35세였던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이후 어머니의 재혼으로 '영혼은 금이 가고' 만다. 예술가에게 어머니는 다양한 의미로 기호화된다. 숭배와 사랑의 대상



년 후, 생을 마친 보부아르가 합장됐다. 함정임 소설가가 청춘 시절부터 자신을 사로잡았던 예술가들의 묘지 순례기를 환관의 책에 담았다.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는 저자가 30대를 앞두고 지중해 해변에 잠들어 있는 폴 발레리의 묘지를 찾아가 32년간 지속해온 예술가들의 묘지 순례에 관한 에세이다.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작가는 본업인 소설 쓰기와 연구 외에도 틈틈이 여행을 다녔고 이를 토대로 '소설가의 여행법', '태양의 저쪽, 밤의 이쪽' 등을 펴내기도 했다. 이번 책은 '함정임의 유럽 묘지 기행'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대학 시절 불문학을 공부했던 작가의 지적 편력과 문학에 대한 열정 등을 담고 있다.

책에서는 샤를 보들레르, 아르튀르 랭보, 폴 발레리, 오노레 드 발자크, 스탕달, 빅토르 위고, 귀스타브 플로베르, 마르셀 프루스트, 레프 톨스토이, 안톤 체호프 등의 묘지 순례기를 만날 수 있다. 문인 외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르크 샤갈, 반 고흐와 테오 등 화가를 그리고 베를린 유대인 희생자들의 묘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보들레르는 6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35세였던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이후 어머니의 재혼으로 '영혼은 금이 가고' 만다. 예술가에게 어머니는 다양한 의미로 기호화된다. 숭배와 사랑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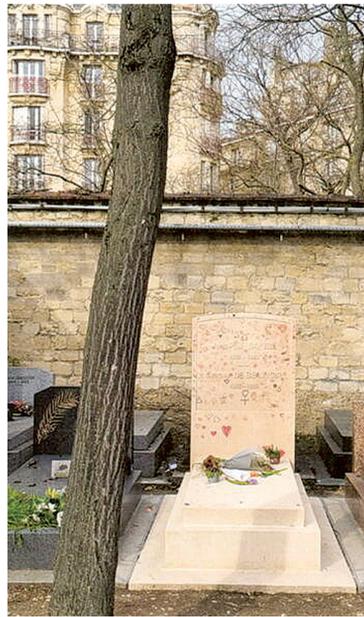
이자 여성성의 근원인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재혼은 보들레르에게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은 절체절명의 사건이었다.

보들레르는 몽파르나스 묘지 6구역에 잠들어 있으며, 26구역과 27구역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어머니의 재혼한 집안 가족묘에 안치된 보들레르는 생전에 "죽어서 남들의 눈물 빌기보다는 차라리 살아서 까마귀 불러 쪼아 먹히"고 싶다고 했었다.

트랑스베르살 길 제12구역에는 아일랜드인 사무원 엘 베케트가 잠들어 있다. 베케트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많겠지만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라 하면 금방 떠올릴 수 있겠다. 그의 언어는 부조리한 세계를 표상하며 의미하려는 경향을 무화해버리는 특징이 있다. 평자들은 그가 파리에서 출생한 프랑스인이었다면 언어가 달라졌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의 언어는 이방인이라는 자의식이 가져온 새로운 언어의 성채였던 셈이다.

뉴욕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눈을 감은 수전 손택이 잠들어 있는 곳은 의외로 파리다. 백혈병으로 숨진 그녀는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에게 파리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것도 베케트 가까이 묻히고 싶다고 했는데 살아 생전 그녀는 열렬한 베케트 추종자였다.

또한 책에는 국민적 영웅 빅토르 위고와 거짓된 권력과 투쟁을 주창했던 에밀 졸라가 잠든 국립묘지 팜데옹에 관한 내용도 있다. 아울러 고전소설 양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했던 발자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르셀 프루스트, 상송의 여왕이



2023년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합장묘 전경.



보들레르는 의무의 가족묘에 어머니와 함께 안치돼 있다.

자 프랑스 국민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영면처인 페르라세즈 묘지 이야기도 기술했다. 한편 책에는 함 작가가 직접 찍은 다채로운 사진

도 수록돼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천암사·2만9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공간 이미지 경영

오선미 지음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영향을 받는 가장 강력한 두 요인을 꼽으려면 시간과 공간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공간을 떠나 살 수 없다. 그 가운데 공간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디지털이 활성화될 지라도 공간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요즘에는 많은 이들이 휴일이나 연휴 때면 교외로 나간다. 아담하고 예쁜 카페나 레스토랑에 들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다. 드라이브를 하다가도 눈에 띄는 카페가 있으면 그곳에 들러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쾌적함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은 점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늘어날 것이다.

오선미 숭실대 경영대학원 이미지 경영학과 겸임교수의 '공간 이미지 경영'은 공간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총괄 감독 등 다양한 콘셉트의 전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책에는 3평 가계부터 대형 매장에 이르기까지 사업 성공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저자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이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부터 공간 목적에 따라 이미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공간은 비즈니스라는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본다. 즉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한들 그릇에 맞는 그릇이 구비되지 않거나 그릇이 더러우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1부에서는 공간 개념에 대한 사례 등이, 2부에서는 공간 이미지 경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공간 구성, 공간 배치와 동선 등에 대한 저자의 조언을 만날 수 있다.

<비엠케이·2만97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상한 동물원의 행복한 수의사

변재원 지음

100바퀴를 도는데 10분이면 충분한,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의 비좁은 공간을 과연 동물원이라 부를 수 있을까?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아연 몸집 때문에 일명 '갈비 사자'라 불리던 바람이 살던 곳은 폐업한 작은 동물원의 실내 사육장이었다. 언론을 통해 바람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갈 곳 없는 바람이를 살린 곳은 충북 청주동물원이었다. 청주 동물원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의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변재원 수의사는 이곳에서 김정호, 홍성현 두 수의사와 함께 300마리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동물도 사람도 행복한 동물원'을 꿈꾸는 변 수의사의 에세이 '이상한 동물원의 행복한 수의사'가 출간됐다. 아쿠아리움 진료 수의사와 동물병원 응급 수의사를 거치며 전시 중심의 동물 시설과 동물의 편안한 삶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을 모두 경험하며 깨닫고 느낀 소회와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세계 각지의 야생에서 살던 동물이 어떻게 동물원의 동물이 되는지, 동물원 동물의 일반적인 삶이 어떤지, 동물원에서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얻게 된 동물은 어떻게 되는지 등 우리가 몰랐던 동물원 속 이야기부터 길들여진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의 기쁨과 슬픔까지 담았다.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아직은 마음이 불편한 곳이라든, 훗날에는 더 이상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이 내몰리지 않기를, 생명이 상품처럼 소모되지 않기를, 그러다 마침내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편안한 동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영사·1만7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가족을 다 안다는 착각

최광현 지음

우리는 종종 '가족'을 곧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식성, 옷 취향 및 라이프 스타일 정도는 자주 대면하다 보면 쉽게 파악이 된다. 그러나 가족의 내밀한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잡고 있는지, 어떤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어떠한 상처를 지니고 있는지 '자신있게' 말하기란 어렵다.

가족을 '잘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33가지 심리 처방을 담은 책이 나왔다. 한세대 심리상담대학원 교수이자 한국트라우마가족치료연구소 소장, 독일 본 대학교에서 가족상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광현 교수가 최근 '가족을 다 안다는 착각'을 펴냈다.

저자는 인간이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고, 오히려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이라 주장한다.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억압된 감정들, 복수심, 내면화된 죄질감 등을 통제하기 위해 이성을 전면에 내세울 뿐, 오히려 인간의 본질은 감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녀들은 각각의 성향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서로에 대해 떠오르는 '감정'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불안이 높은 부모는 통제적인 부모가 될 수 있거나, 완벽주의적 성향의 부모는 아이를 통제하려 들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행동의 기저에는 사실 부모의 과거 경험, 감정 등이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통제적 부모' 뿐만 아니라 '허용적 부모'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들은 대부분 이 스스로를 '수용적인 부모'라 생각하지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임적 부모로 치닫지 않기 위해 자식을 대하며 나름의 '경계'와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블리버튼·1만7500원>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6월호

2024년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위기 넘자! 전통시장의 변신



쇼핑 더하기 관광,  
체험콘텐트 경쟁  
MZ들의 놀이터,  
이시장 어디?  
문화기획자의  
전통시장 살리기 체험



맛과 멋 함께  
'키농샤' 6월호  
보성 여행  
치유정원  
태백산맥  
올포바다

한국학중앙연구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③  
'송나미'라 불렸던 문인화가  
사호 송수민

문화 화제 - 사진으로 만나는 2024 호남예술제  
세계 무대 빛날 예술 꿈나무들의 무대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④  
민화의 세계에 폭 빠지는 공간, 강진 한국민화뮤지엄



문화시인으로 살아가기 ②  
소중하게 키워온  
'아날로그 사랑'  
광주극장을 지키는 사람들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 ⑥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SF MOMA,  
남만의 도시에  
예술의 꽃 피다



예향 초대석  
등단 40년 맞은 아동·청소년문학 작가  
이금이  
"우리 시대 독자와 함께 끊임없이 성장하겠다"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⑥  
전환 다함과 다도의 멋 찾아  
남도로 차 여행  
호남의 누정 ⑩-광주 만취정  
푸르른 지조 지켜온 대학자  
심원표 선생의 우뚝한 맑은 정자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⑥  
광산구 비아와 첨단  
막걸리 목 축이고, 과학기술 키우고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대중의 물결과 스크린 독점 사이...  
또 한 번 천만 관객